## 연예

11 <u>/ 조</u>초등아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

# '독특한 세계관' 피원하모니…"목표는 신인상"

데뷔 전 장편영화 공개 승부수 에스파 · 엔하이픈 내달 신고식

'WHO IS NEXT?'

차세대 케이팝을 이끌어갈 신인들이 잇달아 데뷔 신고식을 치른다. 하반기 데 뷔를 앞둔 신인그룹만 5개 팀이 넘는다 고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도 호기심이 집중된 가운데 28일 피원하모니를 시작 으로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. SM엔터테 인먼트, 빅히트엔터테인먼트, FNC엔터 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를 비롯해 히트 작곡가 겸 프로듀서까지 나서 신인 아이돌 그룹을 론칭하며 더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.

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뒤를 잇겠다 는 각오를 내건 신인 걸그룹 에스파가 11월 데뷔한다. 28일 소속사 SM엔터테 인먼트가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선보 이는 걸그룹으로, '아버타(Avatar)'와 '익 스프리언스(Experience)'의 영어 앞글자 를 따서 합친 'æ'와 '양면'이라는 뜻의 영 어 '애스팩트(Aspect)'를 결합해 만들었 다.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 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의미다.

최근 데뷔하는 신인그룹들이 내세우 는 '세계관'의 연장선이기도 하다. 소속 사 측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담아 내는 멤버의 이름과 티저 사진을 공개하 고 있다.

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 들어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CJ ENM 이 합작한 오디션프로그램인 엠넷 '아이



가요계에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지고 있다. 독특한 세계관을 내세운 6인조 보이그룹 피원하모니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 린 데뷔 미니음반 '디스하모니:스탠드 아웃' 쇼케이스에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.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랜드'가 배출한 7인조 아이돌그룹 엔하 이픈도 다음 달 무대에 나선다. 소속사 빌 리프랩은 최근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 하고 데뷔 예고 영상을 올렸다. '하이픈 (-)'이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해 새로운 의 미를 만들어내는 문장부호인 것처럼, 연 결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한 다는 뜻을 그룹 이름에 새겼다.

트와이스, 청하, 씨스타 등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(최규 성·라도)도 걸그룹을 내놓는다. 이들은 최근 음원차트를 휩쓴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정대의 '돈 터치 미'를 히트곡 대 열에 올려놓으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팀

이들이 설립한 하이업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4인조 신인 걸그룹 스테이씨가 11월12일 세상에 나온다. 스테이씨는 블 랙아이드필승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 및 프로듀싱한 걸그룹으로, 1980년대 '댄싱 킹'으로 불린 가수 박남정의 딸이자 연 기자인 박시은이 멤버로 합류했다.

이들에 앞서 세계관을 담은 장편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운 6인조 피원하모니(P1Harmony)가 28일 정식 데뷔했다. '플러스(Plus)'와 숫 자 '1', '하모니(Harmony)'의 합성어인 그룹명은 '팀'과 미지의 '하나'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가능성이 무한 한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이

들은 이날 온라인 데뷔 쇼케이스에서 "포 부는 많지만,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인 상"이라며 "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 다. 노력해서 꼭 목표를 이루겠다"고 말

이처럼 신인그룹들은 기획사가 쌓아 온 오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노리고 있다. 이를 통해 케 이팝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. 특히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의 지형도를 바꾸며 가장 주목 받는 시점에 데뷔함으로써 인지도와 함 께 팬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 회라는 시선이 나온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블랙핑크의 눈물과 땀…다큐도 대박 질주

일본·홍콩 등 '가장 많이 본' 1위

그룹 블랙핑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 은 다큐멘터리로 새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 다. 최근 내놓은 정규 1집 '디 앨범(The Al bum)'의 수록곡 '하우 유 라이크 댓(How You Like That)' 속 노랫말에서 제목을 따 온 '블랙핑크:라이트 업 더 스카이(Light Up The Sky)'이다.

'블랙핑크:라이트 업 더 스카이'는 온라 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(OTT) 넷플릭스 가 14일부터 전 세계에 공개한 오리지널 다 큐멘터리. 그룹 멤버 지수·제니·로제·리

사가 2016년 데뷔하기 이전 소속사 YG엔 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출발해 세계 팝 음악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담았다. 지난해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 최대 음악축제인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 에 서며 테일러 스위프트, 비욘세, 레이디 가가의 다큐멘터리에 이어 네 번째 주인공 이 되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시켜주고

실제로 다큐멘터리는 28일 현재 한국은 물론 일본, 홍콩 등에서 '가장 많이 본 콘텐 츠' 1위를 차지하고 있다. 또 베트남,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도 2·3위

에 올랐다.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 동지역에서도 최근 10위권에 안착해 순위 를 올리고 있다. 미국과 유럽에서도 서서 히 인지도를 높이는 등 해외 언론과 팬들 의 관심을 얻고 있다.

신원에 따르면 현지 아이튠즈 차트에서 해 외 가수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 블랙핑크는 이번 앨범의 전 수록곡 을 순위에 올렸다. 이에 힘입어 다큐멘터리 역시 5위를 기록했다. 고소영 벨기에 통신 원도 현지 유력 일간지 '더모르헌'을 인용, "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노래하는 이들 가 운데 두 멤버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 명 은 뉴질랜드, 나머지 한 명은 태국 출신"이 라며 "뉴질랜드와 태국에서 태어난 멤버 들은 말 그대로 성공신화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"면서 관련 내용을 이번 다 큐멘터리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.

이 같은 분석은 블랙핑크의 '다문화'적 인 다채로운 색깔의 강렬한 음악이 전 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임병인 터키 통 계적 인기의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시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가요계는 보고 있 다. 다큐멘터리도 인터뷰 등을 통해 네 멤 버가 유대감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세밀히 카메라에 담아내며 한 편의 드라마로 바라 보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. 미국에서 활 동 중인 다큐멘터리 연출자 캐롤린 서 감 독은 이번 작품에서 블랙핑크를 통해 케이 팝의 산업적 성취와 이면에 얽힌 스타들의 눈물과 땀을 소개하며 이 같은 평가를 이 끌어냈다. 윤여수 기자 tadada@donga.com

#### 연예뉴스 HOT 3

#### 양현석,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 구형



해외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 듀서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.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 찰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

다.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 이거스의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비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. 양 전 대 표는 이날 "제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"고 말 했다. 선고기일은 11월27일이다.

### 변희봉·고두심·윤향기 '은관문화훈장' 수상

연기자 변희봉·고두심과 가수 윤향기가 은관문화훈장 을 받았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 흥원이 주관한 제1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 식이 28일 열린 가운데 변희봉은 영화 '괴물', '옥자' 등 에서 펼친 열연으로, 고두심은 MBC 드라마 '전원일기' 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공로로 훈장을 안았 다. 윤향기는 '여러분' 등 다양한 히트곡을 작사·작곡했 다. 성우 송도순, '모래시계' 송지나 작가, 개그맨 임하 룡은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. 시상식은 11월1일 SBS MTV가 녹화 방송한다.

#### 박보검, 해군 공식행사에서 영화 홍보 논란



후 첫 공식행사에서 출연 드라마와 영 화를 홍보해 논란에 휩싸였다. 박보 검은 27일 밤 '2020 대한민국 해군 호 국음악회'를 진행하다 출연작인 tvN 드라마 '청춘기록'과 영화 '서복'을 언

해군 복무 중인 연기자 박보검이 입대

급했다. 이에 28일 누리꾼들은 "박보

검의 영리행위(작품 홍보)에 대해 국방부 민원을 제기했 다"고 주장했다. 해군은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해당해 '영리행위'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. 박 보검은 8월31일 입대해 현재 해군본부 군악의장대대 홍 보대에서 복무 중이다.

편집 | 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